

소유와 탐욕의 경계를 넘는 신앙 - 십계명의 공공성에 대한 윤리적 고찰

이동호 (목원대학교 강사)

- I. 들어가는 말
- II. 왜곡된 번영의 이상화 - 각자도생을 위한 소유가 아닌 서로를 위한 소유를 위하여
- III. “소유와 탐욕을 넘어: 십계명에 나타난 공동체적 윤리”
- IV. 다시 이웃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의 윤리
- V. 결론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5.63.13>

• ABSTRACT •

Faith Beyond the Boundary of Possession and Greed: An Ethical Reflection on the Public Dimension of the Ten Commandments

Lecturer, Lee, Dong Ho (Mokwon University)

What is the essential thing that brings us meaning and happiness in life in modern society? Humans seek stability and a sense of identity through possessions, but an excessive obsession with them creates boundaries and mistrust toward others we must live with. Especially when possessions become the measure of personal worth, discrimination and hostility grow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leading to an ever greater separation and division within communities. The obsessive desire for possessions strengthens individualism, weakens communal ethics, and ultimately diminishes social cohesion and tolerance, thus resulting in social dysfunction. Therefore, this study argues that the value of happiness lies not in possessions, but in appreciating existence itself and living together with others.

This study, from a theological perspective, critically examines how the desire and greed for possessions in contemporary capitalist society undermine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communal ethics and faith. Drawing upon the Ten Commandments of the Old Testament—particularly the Eighth Commandment, ‘Thou shalt not steal,’ and the Tenth Commandment, ‘Thou shalt not covet’—it situates the issues of possession and greed beyond the scope of individual morality, extending them to the broader framework of social ethics. Drawing upon this biblical tradition, the study undertakes a critical analysis of the inequitable structure inherent in contemporary capitalism, its disproportionate accumulation of wealth, and the consequent alienation of humanity. It advances the ethic of ‘common life’ as a foundational principle for alternative religious praxis. The enduring public relevance of the Ten Commandments necessitates the reestablishment of an ethical order wherein individuals, neighbors, and communities coexist in reciprocal interdependence within the paradigm of divine justice and love.

Key words: Possessions, greed, Ten Commandments, common good, Christian ethics

I. 들어가는 말

과거에 우리는 ‘가난’과 싸웠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부유함’과 싸우고 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함에 불안해하며 살아간다. 특히 과도한 과시적 소비는 공공의 선과 도덕성 그리고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 의식을 느끼게 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현재, 집집마다 넘쳐나는 물건만큼이나 무서운 것은 그칠 줄 모르는 ‘타인과의 비교’이다. 절대적인 가난보다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 ‘탐욕의 정당성’을 외치는 인간의 본성이 고개를 들어내고 있다.

가난 때문에 불행했다고 이야기 하기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온정이 넘쳤기에 행복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왔다. 경제적인 결핍은 오히려 함께 살아감의 필연성을 커지게 했고, 섬김과 나눔은 일상의 미덕이었다.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미덕은 사치가 되어버렸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섬김보다는 오히려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가 인간관계의 가치척도가 되어버렸다.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이 사회적 연대와 타인에 대한 배려를 무너뜨려버렸다. 함께 살아감의 의미가 사라져 가고 있다. 탐욕을 자유와 권리로 받아들이고,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는 환상에 빠져 타인과의 관계를 자산의 상대적 위치로 평가하게 되어 이기주의가 팽배해진 사회이다. 공감 능력과 사회적 책임감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공동체 윤리가 사라지고 개인 자산의 이득이 삶의 척도가 되어버렸다. 서로 돕던 공동체가 이익 경쟁사회로 전환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경쟁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불평등, 절도, 구조적 부정의 등과 같은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윤리적 타락을 넘어,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한다. 아파트 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자 이웃에 대한 관심조차 사라졌다는 현상은, 이웃을 ‘이익의 도구’로 보는 왜곡된 시선을 드러낸다. 이러한 사회 현실 속에서 함께 살아감이라는 삶의 윤리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신학적 과제일 뿐 아니라 사회적 요청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구약성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공공성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해 기독교 공동체와 현대 사회에 적용 가능한 윤리적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왜곡된 번영의 이상화 - 각자도생을 위한 소유가 아닌 서로를 위한 소유를 위하여

현대인은 존재 자체보다는 소유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정의하려 한다.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사람들을 자극하고 매혹시키고 사로잡는다. 그로 인해 ‘함께’ 보다는 ‘내 것’이 우선인 사회가 되어버렸다. 더욱이 물질만능주의 사회는 확장을 거듭하여, 우리 삶의 가치를 구현하고 증진시켜 왔던 제도들(공동체, 종교, 학교, 가정 등)의 몰락을 가속화하였다. 현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가치¹⁾ 있게 여기는 것은 바로 ‘돈’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돈 이외의 것을 무가치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사람들이 탐욕스러운 것이 아니라 탐욕을 제어할 다른 가치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가치 있는 것이 사라져 갈 때 인간의 내면에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돈’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²⁾ 이제 우리 인간은 ‘돈’과 ‘부’를 삶의 가치 중의 하나로 여기는 것이

1) 라틴어 ‘발로렘(valorem)은 ‘가치’를 의미하며, 그 주격형은 “발로르”(valor)이다. 이 용어는 ‘건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발레레”(valere)에서 파생되었다. 이 어근이 인간 존재에 적용될 때는 ‘생명력이 강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가치 있다’는 것은 곧 ‘생명에 유익하다’는 뜻을 함축한다. 진정한 가치의 개념은 무엇이 인간의 생명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은 고립된 개인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 더불어 향유될 때 온전히 드러난다. John Ruskin, *Unto This Last*, 광계일 역, 『생명의 경제학』 (서울: 아이북스, 2020), 156.

아니라, 삶의 유일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간다. 더 나아가 ‘돈’과 ‘부’를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렸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상호의존과 상호 책임 속에서 존재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이러한 전제 아래 인간은 독립적 개체로 고립되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자아를 인식하고 삶의 의미를 형성한다. 더 나아가 함께 살아가는 인간은 공공선을 지향하며, 상호 연결된 공동체적 관계 안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함께” 그리고 “더불어”라는 개념이 점차 약화 되거나 소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곧 공공선의 위기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위기는 결국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하나로 묶는 공통의 정체성과 연대 의식의 약화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소유에 대한 인간의 과도한 욕망이다. 이러한 욕망은 사회적 불평등과 구조적 불의를 양산하며, 정의와 연대의 질서를 위협한다. 소유가 이웃에 대한 책임을 배제한 채 개인의 절대적 권리로만 이해될 때, 공동선은 약화 되고 결국 파괴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³⁾ 소유의 본래 목적은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자유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소유는 경쟁과 비교의 대상이 되고, 누군가의 과도한 소유는 다른 누군가의 결핍을 의미하게 되었다.⁴⁾ 소유하려는 욕망은 인간을 타자와 분리시키고, 삶을 소외시킨다. 소유는 탐욕을 자극하고, 이미 소유한 것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2) John F. Kavanaugh, *Following Christ in a Consumer*, 박세혁 역, 『소비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7), 72-73.

3) Walter Brueggemann, *Money and Possession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6), 5.

4) Robert H. Frank, *The Winner - Take - All Society*, 권영경 김양미 역, 『승자독식사회』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13), 20-23.

축적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축적 욕망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쟁과 적대감을 강화시키며, 결국 ‘함께 살아감’의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공동체적 삶을 파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⁵⁾

함께 살아가기 위해 꿈꾸어야 할 ‘부’란 단순히 소유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것들의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부의 본질적 기준은 ‘소유하고 있는 양’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역량’에 두어야 한다.⁶⁾ 인간이 추구해야 할 유일한 부는 곧 “생명”이다.⁷⁾ 이 생명은 사랑과 환의와 경외가 모두 포함된 총체적인 힘이다. 진정한 ‘부’는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는 타자에 대한 우월감이나 비교의 기준을 제공하는 수단이 아니라, 서로를 풍요롭게 하고 공동체적 삶을 확장하는 관계적 힘이어야 한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자신 안에 내재된 생명의 힘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을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확장 시키는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부름 받은 존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유에는 필연적으로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며, ‘소유한다’는 사실은 곧 ‘사명을 부여 받는다’는 의미와 연결된다. 소유는 본래 생명을 지탱하고 확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더 많이 가질수록 더욱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다. 이러한 소유 중심적 사고는 부를 자기만족과 자기 확장의 수단으로 전락시키지만, 소유의 진정한 목적은 이웃과의 연대 속에서 함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에 있다.

소유는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생명을 보전하고 회복하기 위한 목적론적 기능을 지닌다. 따라서 소유는 단순히 재산이나 자원을 개인적으로 확보하려는 행위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공적 책임

5) Erich Fromm, *To Have or To Be*, 차경아 역, 『소유나 존재냐』 (서울: 까치글방, 1996), 163-164.

6) John Ruskin, *Unto This Last*, 광계일 역, 『생명의 경제학』, 161.

7) 위의 책, 195.

과 긴밀히 연관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곧 소유는 모든 피조물의 생명, 특히 사회와 공동체의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때 비로소 창조 질서에 합당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점에서 소유는 개인적 권리 이전에 공동선을 위한 윤리적 사명을 내포하고 있다.⁸⁾ 기독교 전통에서 소유의 개념은 단순한 물질적 축적을 넘어, 부와 재산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가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성례전적인 의미를 지닌다. 인간이 보유한 소유는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구체적 행위 안에서 드러내는 성례전적인 나눔, 자기 몸 내어줌, 생명 공유의 경제원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와 재산은 단지 개인적 이익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 사회 안에서 행복, 정의, 평화를 창조하고 증진시키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되어야 한다.⁹⁾

예수의 가르침 역시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공동체적 책임을 핵심 가치로 제시한다. 특히 예수의 소유에 관한 가르침은 부의 축적이나 자본의 자율성을 정당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과 나눔, 생명 보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 실현에 있다. 예수가 제시한 재산(물질)의 소유와 사용에 관한 원리는 궁극적으로 인간 생명을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한 윤리적 지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수는 인간의 생존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질적 자원이나 재산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으셨으며, 이를 전적으로 포기할 것을 보편적 규범으로 요구하지도 않으셨다. 오히려 재화와 물질적 필요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공하시는 삶의 기본적 자원이며, 인간 존재의 지속과 공동체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 예수의 가르침은 이러한 물질적 필요를 부정하는 대신,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적 책임, 상호 의무, 그리고 함께 살아감의

8) Jürgen Moltmann, *Gott im Projekt der modernen Welt*, 광미숙 역,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 (서울: 동연, 2009), 217-235.

9) 김희권, 『자비 경제학』 (서울: PCKBOOKS, 2022), 38-39.

윤리를 강조한다. 특히 재산(물질)의 소유와 사용에 관한 그의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적 금욕이나 금전적 포기 명령이 아니라, 소유가 공동선과 이웃 사랑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신학적이며 윤리적인 지향을 포함한다. 이러한 관점은 공관복음(막 10장; 마 19장; 눅 18장)에 기록된 이른 바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난다. 이 이야기는 재산 소유의 윤리적 의미, 공동체적 책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질서에 대한 예수의 핵심적 가르침을 함축하고 있다.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의 전통적 해석은 영생을 얻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 물질적 소유라고 보아 왔다. 이러한 해석은 종종 재물의 포기만이 영원한 삶을 획득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관념을 형성하였고, 그 결과 인간이 소유하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강화해 왔다.¹⁰⁾ 예수의 소유와 사용에 대한 가르침은 한 부자 청년이 제기한 영생에 관한 질문에 서 출발한다. 그가 제기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산상수훈의 말씀 “기업을 받다”는 표현과 의미적으로 상응한다.¹¹⁾ 부자 청년의 질문은 영생을 일종의 유산상속의 범주 안에서 이해하려는 시각을 반영한다. 다시 말해 그는 세상의 지배체제의 연장선에서 많은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손에 넣지 못한 또 다른 상속물로서 영생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청년의 모습은 채워도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는 십계명의 계명 중에서 “살인, 간음, 도둑질 그리고 거짓 증언 하지 말라”까지 이야기 하시고 더 나아가 제5계명인 “부모공경”으로 순서를 거슬러 올라 가기 전에 “속여 빼앗지 말라”(막10:19)¹²⁾라는

10) G. McKenny, “The Rich Young Ruler and Christian Ethics: A Proposal,” *Journal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40/1 (2020), 60-61.

11) 박원일, 『마가복음 정치적으로 읽기』 (고양시: 한국기독교연구회, 2016), 204.

12) “속여 빼앗지 말라”의 헬라어 원어는 “네 아포스테레세스(με ἀποστρέψεις)”다. 이 말씀은 바울서신 고린도전서 6장 7-8절에 기록되어져 나온다. 특히 법정에서 고발하여

십계명에 없는 계명까지도 언급하신다. 예수의 대답 중에 특이한 점은 십계명의 열 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속여 빼앗지 말라”로 대체 된 것이다. 예수의 명령인 “속여 빼앗지 말라”는 단순한 경제적이고 상업적인 윤리 규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타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윤리적 전제, 곧 타인의 고통과 결핍을 외면한 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에 대한 경고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수는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이웃의 절박한 요청을 외면하는 행위가 곧 타자를 ‘속여 빼앗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가르친다.¹³⁾ 부자 청년은 계명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응답한다. 그러나 예수는 그에게 한 가지 결핍, 곧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요구를 제시함으로써 그의 삶의 중심이 무엇에 놓여 있는지를 드러내신다. 본문은 긍정적 결말로 이어지지 않는다. 부자는 슬픈 기색을 띠우며 자리를 떠나간다. 떠나가는 부자 청년을 뒤로하고 예수는 그의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10:23)고 선언하신다. 이는 재물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비판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집착과 소유 중심적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영적 장애물임을 지적하는 말씀이다. 부자 청년의 약점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부유하다는 점이였다. 가진 것의 상대개념을 갖지 못한 것이라기보다는 더 많이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의 축적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가졌다’는 강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약점으로

서로 속이는 이방인 신자들을 책망한 바울의 기록이다. 고묘히 법을 이용해서 공동체 식구의 돈을 뜯어낸다는 의미에 가깝다. 이 헬라이어 원어의 다른 예로 야고보서 5장 4절 기록되어져 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헬라이어 동사 : “아페스테레오” ἀποστέρω) 샅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기서 빼앗는 주체는 부유한 지주이고 피해자는 날품팔이꾼이다.

13) 한철흠, “마가복음 10:17-31 다시 읽기 : 부자는 진정한 구도자였나?,”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0 (2018), 119.

등장한다. 스스로 한계를 정해 자족할 줄 알고 재물에 얽매이지 않아야 하는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구하고 또 구한다는데에 문제가 있다. 끝없이 이어지는 욕망의 순환고리이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바로 함께 살아감을 방해하는 근원적인 원인이 된다. 예수의 메세지,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명령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부와 재물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에 대한 충고의 메세지이다. 재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에 대한 갈망을 저주하고자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다.

‘재물을 나눈다’는 행위는 단순한 경제적 분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에 따라 삶을 영위하려는 신앙적 실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재물을 힘과 권력의 확장 수단으로 간주하는 지배 체제적 사고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달란트의 일부로 이해하며 공동선을 위해 사용하려는 신학적 태도이다. 소유가 곧 권력으로 기능하는 세속적 가치체계와 지배 이데올로기 안에서 ‘나눔’은 필연적으로 자기 소유의 감소나 손실로 이해된다. 따라서 나눔은 세상의 가치관과 근본적으로 상반되는 개념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예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재물에 의존하는 자들에게 “심히 어렵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부자청년의 메세지는 분명하다. 세상의 가치체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질서에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다.¹⁴⁾ 영생조차도 소유의 대상으로 이해한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나눔 없이 진정한 생명을 누

14) 박원일, 『미가복음 정치적으로 읽기』 (고양시: 한국기독교연구원, 2016), 205-208.

릴 수 없음을 경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의 주제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III. “소유와 탐욕을 넘어: 십계명에 나타난 공동체적 윤리”

십계명은 단순한 개인적 도덕규범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고 유지하기 위한 “함께 살아감의 윤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물질 사이의 관계에 대한 윤리적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된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각각 인간의 삶과 공동체적 질서 안에서 지켜야 할 근본적 원칙을 제시한다. 1-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4-10계명은 이웃과 물질에 대한 관계가 순차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이러한 십계명에 나타난 관계의 윤리는 소유 지향적인 관계가 아니라 존재 지향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¹⁵⁾ 특별히 인간과 인간이 맺어야 할 윤리적 관계 지침을 알리는 십계명의 후반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으로 끝을 맺고 있다. 후반부의 첫 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한 규례는 단순하게 개인 윤리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다.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해 진다’라는(출 21:17; 레 20:9) 형벌 규정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부모 공경이 단순히 개인의 의무를 넘어 공공의 윤리적 영역임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매우 간결한 형식으로 주어졌지만, 인간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 규범을 담고 있다. 십계명에 이 세 가지 계명이 하나의 묶음으로 제시된 이유는, 이 윤리적 규범들이 개인의 자유를 넘어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탱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필요

15) 한기채, 『성서 이야기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78.

한 조건들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계명들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행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이해되기보다는, 공동체의 공공선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신적 질서로 해석되어야 한다. 살인은 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함으로써 공동체 전체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간음은 부부 관계를 파괴함으로써 가정 공동체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타인의 소유물이나 재산을 훔쳐서는 안된다고 해석되어 졌던 제8계명 역시 개인적인 윤리를 넘어 공공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계명이다. 제9계명 “거짓 증거”에 관련된 계명은 진실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동체 인간관계에서 필수적인 계명이다. 이 계명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정직성을 요구하는 명령을 넘어 공동체 정의와 신뢰를 보존하기 위한 공공의 윤리적 계명이다. 거짓 증언은 한 개인의 명예와 생명을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붕괴시키며, 하나님의 정의 질서를 파괴한다.¹⁶⁾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탐심”에 관한 규율 역시 인간의 물질 욕구에 대한 엄정한 경고로서, 역시 개인의 삶이 어떻게 공동체의 삶과 연결 되어져 있는지를 규명한다. 이렇듯 십계명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삶의 원칙을 제시하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공동체 전체의 안녕과 평화, 곧 하나님의 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공 윤리의 토대를 제시하는 데 있다.

특히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와 제10계명 ‘탐내지 말라’는 인간의 소유, 욕망,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공동체를 파괴하는 구조적 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신학적 목적을 지닌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제8계명은 종종 개인의 소유권을 정당화하거나 사유 재산의 신성불가침을 옹호하는 근거로 해석되어 왔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계명이 사적 소유의 합법성과 절대성을 뒷받침하는 신학적 토

16) 위의 책, 53.

대로 왜곡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자본의 논리에 종속된 경제 체제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경쟁 심리를 부추겨 소유를 인간 존재의 궁극적 목적처럼 전환시켰다. 이러한 “과소유”라는 욕망은 인간의 욕망과 갈등을 해결해 주기보다는 도리어 인간 자신을 소외시켜 버리고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의 사적인 소유는 타인을 외면하게 만들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¹⁷⁾ 결국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삶은 점점 더 이해타산적으로 변해가며,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보다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소유의 덫’에 빠지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정의를 공생과 섬김 그리고 돌봄의 가치 속에서 드러낸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8계명은 단순히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명령이 아니라, 이웃의 생존권과 공동재화의 공공성을 보전하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선포한 규범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제8계명의 본래 의미는 사적 소유권의 절대화를 옹호하기보다, 사유재산권의 무분별한 형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차단하는 데 있다. 부가 과도하게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는 현상은 넓은 의미에서 공동체가 함께 누려야 할 자원을 탈취하는 행위로 간주 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평등을 파괴할 뿐 아니라 공동체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는다.¹⁸⁾ 이스라엘 사회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해석은 더욱 분명해진다. 당시 유목 사회였던 고대 유대 사회에서 우물이나 목초지, 가족 같은 주요 재화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재산으로 인식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토지는 씨족이나 부족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이었지 결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었다.

17) 박성철, 『현대사회와 그리스도인의 경제윤리』 (파주: 한국학술정보, 2023), 120-123.

18) 위의 책, 99-100.

(민27:1-11; 신 19:14 등)¹⁹⁾ 이러한 사회경제적 구조는 제8계명이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의 재산을 사적으로 전유하려는 부도덕한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으로 부여되었음을 시사한다.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아간 사건’은 바로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수7: 1-20) 전쟁의 전리품이 공동체의 몫으로 규정된 상황에서, 아간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외투와 금덩이를 은밀히 취하였다.(수 7:1-20) 그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전투에서 패배하고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는 개인의 탐욕적 사유화가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음을 증언하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²⁰⁾ 결국 제8계명은 공동체 구성원의 삶을 파괴하는 탐욕과 탈취를 막음으로써, 함께 살아감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신적 규범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제8계명은 가난한 이웃을 돕고 함께 나누라는 사회 윤리적인 요청을 내포하고 있다.(신 14:28-29, 레 19:9-10) 부의 과도한 축적은 공동체가 함께 향유해야 할 자원을 사적으로 전유하는 행위이며, 이는 넓은 차원에서 사회적 도둑질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탐욕적 행위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평등을 붕괴시키고,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 즉 제8계명은 인간 공동체의 총체적 안전성과 공공성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4세기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러한 관점을 명확하게 신학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자신의 자원을 공유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곧 강도 행위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즉, 풍족한 자원을 공동선의 영역으로 돌리지 않는다면, 그 결과 타인의 생존 가능성을 빼앗고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19) 조용훈, 『우리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열가지 말씀-십계명의 영성과 윤리』 (서울: 동연, 2015), 247.

20) Walter Brueggemann, *poverty in the Promised Land*, 박규태 역, 『성서와 가난』 (서울: 복있는 사람, 2025), 109.

도둑질과 같다는 의미이다. 크리소스톰은 소유의 본질을 본래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사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이며 세상의 부를 나누는 역동적인 기능으로 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시혜를 넘어서서 사회 윤리적 정의의 회복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소유의 정의는 나눔의 책임을 전제하고 공동체적 연대는 사회적 정의를 이루는 필수 요소인 것이다.²¹⁾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역시 제8계명을 이웃의 생계 보호와 삶의 존엄성 유지라는 차원에서 이해하였다. 그는 이 계명을 타인에 소유를 훔치는 것을 넘어, 이웃의 재산과 생계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탐욕을 버리고 정직과 섬김 그리고 나눔으로 살아가는 삶을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공동체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²²⁾ 존 칼빈 또한 제8계명을 사회 정의와 이웃 사랑의 기반으로 보았다. 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단지 개인 윤리 안에 정직성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 정의를 이루는 토대로 이해하였다. 그는 ‘노동자의 품삯을 속이는 행위, 가난한 자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 불의한 거래로 이익을 취하는 모든 불의한 경제 활동이 바로 이 계명을 어기는 행위로 간주하였다. 칼빈에 따르면 제8계명은 정직한 경제 질서, 공동체적 책임, 이웃 사랑의 실천을 요청하는 신학적 명령이다.²³⁾ 결국 제8계명은 사적 재산의 보호가 아니라, 함께 살아감의 윤리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정의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소유는 나눔을 통해 완성되며, 공동체는 정의를 통해 유지된다. 따라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오늘날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공공재의 공정한 분배와 이웃의 생존권 보

21) Charles Avila, *Ownership: Early Christian Teaching*, 김유준 역, 『초대교부들의 경제사상 소유권』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8), 132-133.

22) Martin Luther, *Der Große Katechismus*, 최주훈 역, 『대교리문답』 (서울: 복있는사람, 2017), 148-161.

23)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안영복 역, 『기독교 강요 상』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9), 501-504.

장을 요구하는 신앙적 책임의 원리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도둑질의 근원은 탐욕이다.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이 탐욕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 탐욕은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욕심을 부려 과도하게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즉 절제되지 않는 욕망을 의미한다. 이 마지막 계명은 인간 행위의 근본적인 동기를 다루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 초점을 두기보다 인간 내면의 죄와 본성의 문제를 다루는 계명이 바로 열 번째 계명이다.²⁴⁾ 오늘날 자본주의 소비사회에서 탐욕은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경계해야 할 위협스러운 일로 간주 되지 않는다. 오히려 소비를 위한 욕망은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추앙받는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이론적 기초를 놓았던 아담 스미스는 탐욕을 경제 행위의 핵심 동기라고까지 보았다. 그는 소비자들이 맛있는 빵이나 음식을 적당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제빵업자들의 ‘호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경제적 탐욕’ 때문이라고 해석했다.²⁵⁾ 그러나 성경은 탐욕을 단순히 물질적 욕심이나 부의 추구를 넘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올바른 관계를 왜곡시키는 마음의 태도로 규정한다. 탐욕은 이웃과의 공존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영적 반역의 성격을 지니며, 결국 공동체적 삶을 붕괴시키는 죄의 원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10계명은 제8계명과 긴밀하게 연결 되어져 있고, 공동체를 향한 책임 있는 소유 의식과 관계 윤리를 정립하기 위한 결론적인 명령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출20:17)라는 계명에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하마드(חָמַד)의 의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단어는 단순한 내면의 감정이나 부러움의 차원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행위를

24) John M. Frame, *A Theology of Lordship: The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이경직 역, 『기독교 윤리학: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리』 (서울: 개혁주의신학사, 2015), 1094-1095.

25) 조용훈, 『우리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열가지 말씀 - 십계명의 영성과 윤리』, 292.

포함한다. “탐내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어떤 대상을 좋아하고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취하려는 ‘의지적 행위’까지 포괄한다.²⁶⁾ 따라서 제10계명은 단순히 마음속의 욕망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행동으로 발전하여 타인의 소유 질서를 침해하는 전 과정을 금지하는 명령이다. 이 계명은 인간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탐욕의 구조적 악순환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욕망은 소유를 낳고, 소유는 더 큰 욕망을 불러일으키며, 이러한 순환은 인간의 내면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병들게 만든다. 욕망과 소유의 무한한 반복은 결국 재물의 끝없는 추구와 경쟁을 낳고, 인간 사이의 신뢰를 파괴하며, 공동체를 해체한다. 탐욕은 개인의 내면적 결핍에서 출발하지만, 그 결과는 사회적 파괴로 귀결된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신앙적 측면에서 제10계명은 인간이 물질적 소유와 소비에 매여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잃어버리는 것을 경계한다. 십계명은 단순한 도덕규범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공동체의 생명 유지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적 현상이다. 둘째, 사회 윤리적 측면에서 이 계명은 계명 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웃”이라는 표현을 통해, 신앙의 본질이 ‘타인의 안녕’과 ‘경계 존중’에 있음을 선포한다. “너의 이웃의 집”, “너의 이웃의 아내”, “너의 이웃의 소유”라는 구절의 반복은, 인간의 욕망이 언제나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따라서 제10계명은 이웃의 삶을 침해하지 않는 올바른 소유 의식과 관계 질서를 확립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이라 할 수 있다.²⁷⁾

십계명에 담긴 함께 살아감의 윤리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경제 그리고

26) Crusemann Frank, *Bewahrung der Freiheit: das Thema des Dekalogs in sozialgeschichtlicher Perspektive*, 이지영 역, 『자유의 보존: 사회사적 관점에서 본 십계명의 주제』 (양평: 크리스찬 헤럴드, 1999), 94.

27) Walter Brueggemann, *Money and Possessions*, 16-17.

사회적 회복을 지향했던 희년 사상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희년은 단순한 부동산 반환이나 빚 탕감 제도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누구도 가난과 소외로 인해 삶의 기반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정의의 질서였다. 소유권의 궁극적 주인이 하나님임을 선포하며, 인간의 소유 행위가 나눔과 회복이라는 공공선 안에서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제도라 할 수 있다. 희년 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이고 신학적인 장치였다.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희년 제도는 경제적 축적과 불평등이 구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등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공동체 윤리를 구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이 초래하는 다양한 사회적 소외를 해소하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천적 노력이며,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신15:4)고 약속하신 언약 공동체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였다.²⁸⁾ 유대 사회에서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으며, 인간은 단지 그 땅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청지기였다. 따라서 경제적 위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다른 이에게 넘기게 되더라도, 그 땅은 결국 본래의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야 했다. 희년은 이 회복의 순간이었으며, 토지 소유를 양도한 사람과 이를 맡은 사람 모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곤경에 처한 이는 소출의 가치를 미리 제공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임시 소유자는 그 기간 동안 농산물을 통해 투자한 값을 회수할 수 있었다. 이처럼 희년은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연대와 공평성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정의의 법이었다.²⁹⁾ 따라서 제8계명과 제10계명은 단순히 개인의 절제나 사유 재산 보호에 머물지 않는다. 도둑질과 탐욕을 금하는 명령은

28) 정애주, 『희년』 (서울: 홍성사, 2019), 53.

29) 이익상, 『내가 왕이었습니다』 (서울: 규장, 2020), 170-171.

곧 희년의 가치, 곧 함께 살아감의 정의를 공동체 안에 구현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불평등, 빈부격차, 착취 구조의 해체 또한 바로 이 계명들이 지향하는 신학적 목표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IV. 다시 이웃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의 윤리

“I was someone else’s property.”(나는 누군가의 소유물이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 2025년 발표한 캄보디아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실태보고서의 첫머리 말이다. 이 한마디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윤리적 도전을 던지고 있다. 최근 드러난 캄보디아발 ‘스캠 컴파운드(Scam Compound 범죄합숙시설)’의 실상이 연일 드러나면서 전 세계에 전례 없는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들은 단순한 개인 범죄 행위를 넘어, 인간의 자유와 노동이 경제적 이윤과 권력의 수단으로 전락한 구조적 폭력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다수의 외국인 청년들이 ‘고수익 아르바이트’ 혹은 ‘해외 취업’ 광고에 속아 캄보디아로 유인된 후, 해당 시설 내에 감금되어 보이스 피싱, 온라인 사기, 랜섬 웨어 운영 등 불법 행위에 강제로 동원된 사건이다. 국제 인권 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약 10만명에 이르며, 폭력과 고문으로 인한 사망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³⁰⁾ 특히 2025년 8월 한국인 대학생 B씨가 캄보디아 보꼬산 인근 밀림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사건은 노동력과 생명이 자본 이익을 위한 자원으로 전락한 ‘디지털 노예제’ 산업 구조의 극단을 보여준 사건이었다.³¹⁾ 이러한 비극의 근저에는 “더 많이 가지려는 인간의 탐욕”

30) 송승중, (2025.10.26.), 부패 권력과 중국 자본의 결합이 ‘디지털 노예 왕국’ 세웠다,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5499>, 2025.10.26.

31) 이미나, (2025.10.13.) ‘月 1000만원’ 뒷에 걸린 청년들...캄보디아 해외취업 실태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01350167?utm_source=chatgpt.com,

이라는 본질적 윤리 문제가 자리한다. 중국계 범죄조직과 부패한 캄보디아 관료, 자본가들이 탐욕의 연합 구조를 형성하여 이를 합법적인 투자로 포장하고, 가난한 청년들을 잔혹하게 착취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인신매매 혹은 사기 범죄를 넘어서서 인간이 타인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비극적인 사건으로 해석된다. ‘돈’과 ‘권력’을 위해 사람을 도구화하는 구조적 폭력이 한 국가의 경제시스템과 결탁하여 개인의 존엄을 파괴한 사건이다. 캄보디아 사건은 단순한 인권 침해가 아니라 인간을 도구화한 탐욕의 구조적 표출이다. 탐욕이 타인의 생명과 자유를 소유하려 할 때,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이웃사랑의 해체로 이어진다. 폴 틸리히(Paul Tillich)는 “정의는 사랑의 형식”임을 강조했다. 사랑은 단순한 호의나 자비를 넘어서, 정의로운 관계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포함한다.³²⁾ 정의 없는 사랑은 감상적 호의로 전락하고, 사랑 없는 정의는 냉혹한 제도적 폭력으로 변질된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은 반드시 정의를 내포하며, 타인의 권리와 존엄을 실질적으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수의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사랑’이다. 특히 요한복음 13장 34-35절에서 예수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새로운 계명’으로 선포하셨다. 그러나 “새로운 계명”이라는 표현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이웃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미 구약 율법, 특히 레위기 19장 18절의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 속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구약의 율법적 가르침과 예수의 명령은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듯 보인다. 그렇다면 왜 예수는 이미 존재하던 이 계명을 굳이 ‘새로운 것’으로 선언하셨을까? 이에 대한 신학적

2025.10.16.

32) Paul Tillich, *Love, Power, and Jus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106.

해석은, 예수가 말한 ‘이웃’의 범주가 구약 율법의 ‘이웃’ 개념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한다. 레위기 19:18에 등장하는 ‘이웃’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에 포함된 사람들이다. 이미 예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이 ‘이웃’의 개념을 넘어서게 하셨다. 예수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라는 율법 교사의 질문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눅10:25-37)라며 반문하셨다. 예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한 ‘이웃’의 가르침은 혈연, 인종, 종교, 사회적 경계 혹은 이익 관계를 넘어서 실제로 고통받는 자를 돌보고 공감하며 사랑을 전한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며, 그런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이웃’이 되어가는 길임을 제시한다. 예수의 가르침 “새로운 계명”은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웃’을 근원적으로 재구성하신 것이다. 또한 사랑을 ‘원수-사랑’까지 넓힘으로써 사랑의 범주를 급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³³⁾ 현대사회는 성취와 경쟁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성취와 경쟁 그리고 이익이 만들어낸 사회 구조 안에 이웃의 범주를 만들어 가는 사회이다. 이러한 구조는 인간을 수단화하고 공동체적 연대를 약화시킨다. 기독교 사회윤리는 상호 돌봄과 연대의 문화를 세울 것을 요구한다. 사랑의 윤리는 공동체를 ‘승자 독식’의 공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오늘날 기독교 윤리는 다시금 묻는다: “그 사람은 너에게 이웃이었느냐, 아니면 자산 평가의 기준이었느냐?” 공동체는 시장 논리에 의해 지속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사랑과 책임의 실천적 윤리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V. 결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사회는 전적으로 소유지향과 이윤추구로 치방

33) 강남순, 『철학자 예수 - 종교로부터 예수 구하기』 (김포: 행성B, 2024), 129-131.

된 사회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소유를 겨냥하는 실존을 당연한 것으로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방식으로 여기며 살아간다. 소유는 인간의 자유와 자율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로 간주되어 왔다. 땅을 소유하고, 집을 갖고, 교육과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재산이 있다는 것은 자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 소유는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누군가에게는 가능성을 열어 주는 수단이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소외와 억압의 벽이 된다. 소유의 본래 목적은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자유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소유는 경쟁과 비교의 대상이 되고, 누군가의 과도한 소유는 다른 누군가의 결핍을 의미하게 되었다. 행복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존재의 질에 달려 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를 물을 때, 삶은 보다 충만하고 자유로워진다. 행복은 결국 사랑하고, 나누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피어난다. 공동체를 세우는 윤리로서의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윤리적 삶의 방향이다. 사랑은 감정적으로 누리는 만족이 아니라 실천해야 하는 책임이며, 사회 정의를 통해 구체화되어지는 공동체적인 행위이다. 특별히 십계명의 제8계명과 제10계명이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는 윤리라면, 사랑은 공동체의 생명을 지속시키는 윤리이다. 사랑을 통한 공동체 형성은 오늘날 기독교 윤리가 현대 사회에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대안이다. 기독교인은 개인 구원을 넘어, 사랑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을 지닌다. 그 길 위에서, 사랑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며, 삶의 윤리적 본질이다.

참고문헌

- 강남순. 『철학자 예수 - 종교로부터 예수 구하기』. 김포: 행성B, 2024.
- 김희권. 『자비 경제학』. 서울: PCKBOOKS, 2022.
- 박성철. 『현대사회와 그리스도인의 경제윤리』. 파주: 한국학술정보, 2023.
- 박원일. 『마가복음 정치적으로 읽기』. 고양시: 한국기독교연구소, 2016.
- 이익상. 『내가 왕이었습니다』. 서울: 규장, 2020.
- 한기채. 『성서 이야기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정애주. 『희년』. 서울: 홍성사, 2019.
- 조용훈. 『우리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열가지 말씀 - 십계명의 영성과 윤리』. 서울: 동연, 2015.
- 한철흠. “마가복음 10:17-31 다시 읽기 : 부자는 진정한 구도자였나?”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110(2018), 107-134.
- Avila, Charles. *Ownership: Early Christian Teaching*. 김유준 역. 『초대교부들의 경제사상 소유권』.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8.
- Brueggemann, Walter. *poverty in the Promised Land*. 박규태 역. 『성서와 가난』. 서울: 복있는 사람, 2025.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안영복 역. 『기독교 강요 상』.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9.
- Frame, John M. *A Theology of Lordship: The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이경직 역. 『기독교 윤리학: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리』. 서울: 개혁주의신학사, 2015.
- Frank, Crusemann. *Bewahrung der Freiheit: das Thema des Dekalogs in sozialgeschichtlicher Perspektive*. 이지영 역. 『자유의 보존 : 사회사적 관점에서 본 십계명의 주제』. 양평: 크리스찬 헤럴드, 1999.
- Fromm, Erich. *To Have or To Be*. 차경아 역. 『소유나 존재냐』. 서울: 까치글방, 1996.
- Frank, Robert H. *The Winner - Take - All Society*. 권영경 김양미 역. 『승자 독식사회』.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13.
- Kavanaugh, John F. Kavanaugh. *Following Christ in a Consumer*. 박세혁 역. 『소

- 비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7.
- Luther, Martin. *Der Große Katechismus*. 최주훈 역. 『대교리문답』. 서울: 복있는 사람, 2017.
- Moltmann, Jürgen. *Gott im Projekt der modernen Welt*. 광미숙 역.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 서울: 동연, 2009.
- Ruskin, John. *Unto This Last*. 광계일 역. 『생명의 경제학』. 서울: 아이북스, 2020.
- Tillich, Paul. *Love, Power, and Jus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 Brueggemann, Walter. *Money and Possession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6.
- McKenny, G. "The Rich Young Ruler and Christian Ethics: A Proposal," *Journal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40/1(2020), 59-76.
- 송승중,(2025.10.26.), 부패 권력과 중국 자본의 결합이 '디지털 노예 왕국' 세웠다,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5499>, (2025년 10월 26일)
- 이미나,(2025.10.13.) '월 1000만원' 댁에 걸린 청년들...캄보디아 해외취업 실패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01350167?utm_source=chatgpt.com, (2025년 10월 16일)

논문투고일: 2025년 10월 31일

심사개시일: 2025년 11월 17일

게재확정일: 2025년 12월 16일

• 국 문 초 록 •

현대 사회에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은 소유를 통해 안정감과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지만 오히려 지나친 소유에 대한 집착은 함께 살아가야 할 타인과의 경계와 불신을 키워 내었다. 특히 소유가 개인의 가치 평가 기준이 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차별과 적대감이 커지고, 이로 인해 공동체의 단절과 분열이 점점더 커지고 있다. 집착에 기반한 소유 욕구는 개인주의를 강화하여 공동체 윤리를 약화시키고, 결국 사회적 연대감과 관용을 감소시켜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려야 할 행복의 가치를 소유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가치 인식과 타인과의 공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소유욕과 탐욕이 어떻게 공동체적 윤리와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지를 신학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구약성서의 십계명, 특히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와 제10계명 “탐내지 말라”를 중심으로, 소유와 탐욕의 문제를 개인의 도덕 차원을 넘어 사회 윤리적 질서의 문제로 확장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서적 전통을 통해 현대 자본주의의 불평등 구조, 과잉소유, 인간소외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함께 살아감”의 윤리를 대안적 신앙 실천의 원리로 제안한다. 십계명의 공공성은 소유와 탐욕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안에서 인간과 이웃, 공동체가 상호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윤리적 질서의 회복을 요청하고 있다.

주제어: 소유, 탐욕, 십계명, 공동선, 기독교윤리
